

학생·선생님이 함께하는 역사유적지 탐방

순천교육청, 시 예산지원 받아 사회적 배려학생·모범학생 등 백두산·고구려 국외체험학습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순천시와 예산지원을 받아 관내 중학교에서 사회적 배려학생 및 모범학생 55명을 추천받아 8월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 백두산과 고구려 초기 역사유적지이자 북한 접경지역인 집안시를 탐방하는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국외체험학습은 사회적 배려학생 및 모범학생들에게 역사탐방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관 및 통일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순천신흥중학교(교장 윤순석) 주관으로 관내 중학교·교직원 9명의 지도 및 인솔로 실시된 이번 체험학습은 첫째날은 항공편으로 중국 요녕성 셴양으로 들어가 버스편으로 길림성 통화시로 이동했고, 이후 이틀에 걸쳐 백두산 서파와 북파에 올라 천지와 금강대협곡, 소천지, 녹연담 등을 탐방하고, 넷째날에는 압록강 중류의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고구려 두번째 도읍지 역사유적이 많이 산재한 집안시를 탐방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청나라의 두번째 도읍지였던 셴양에서 오전에는 한국중국문화가 공존하는 사탑거리와 청태종의 무덤이 있는 북릉공원을 탐방하고, 오후에는 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셴양고궁박물관을 탐방하고 항공편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을 거쳐 순천으로 돌아왔다.

차안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북이 있느냐, 삼대에 걸쳐 덕을 쌓았느냐, 백번 올라 두 번 본다는 산이 백두산이었는데, 우리는 두 번 올라 두 번 보았으니 무슨 행운인가'라면서 떠들었다. 비룡폭포(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부름)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우렁찬 폭포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 웅장함에 놀랐고, 은가락지를 닮은 순천지에 서는 물에 비친 아름다운 자작나무를 보았으며, 쌍둥이 폭포 아래의 녹연담의 물 색깔은 주변 나뭇잎들과 조화를 이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넷째날은 통화시에서 두시간 산길을 달려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 국내성(산성은 환도산성)이 있던 집안시를 탐방하고 셴양으로 돌아왔다. 먼저 도착한 광개토태왕릉비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비락을 지어 보호하고 있었으며, 광개토태왕릉으로 추측되는 호태왕릉은 훼손돼 돌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널방은 감시원이 지키고 있었으나 내부는 관대석만 있고 텅 비어있었다.

두 번째로 들른 장군총은 장수왕릉으로 많이 추정하고 있는데 다른 고분들에 비해서는 잘 정돈돼 있었다. 그러나 석실은 고분 훼손 우려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들른 귀족무덤인 오호분은 호분은 관대석이 셋이 있고 사신도 벽화가 잘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결코 현상이 심해서 4호분과 마찬가지로 곧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로 통구하를 건너 들른 환도산성과 산성하고분군은 지금 많은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환도산성은 평지쪽에 남문을 두고 동서,북쪽의 각 아지르듯한 지형을 잘 이용해 포곡식 산성으로 만들었다. 남쪽으로 국내성이 훤히 보이는 곳에 조성됐으며, 산성하고분군은 귀족들의 무덤이 몇 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 집안의 고분은 대략 만 여기로 추정한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00년전 신채호 선생과 3년전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감탄하고 절을 할만 했다.

다섯 번째로 국내성터를 보러 갔는데 성터는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 형체가 사라졌는데 일부 구간에 성벽을 복원해 대략적인 추정은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역 어린이들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

순천대-순천시 '1박 2일 여름방학 순천만 생태문화 캠프' 성공리 운영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는 순천시와 함께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1박 2일 여름방학 생태문화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및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두루미와 문화에 관한 체험 예술 프로그램', '순천만습지 탐방을 통한 생태 이해', '어린이 모의 탐사르 총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루미 공연단(헤더 헨슨 및 제이슨 굴로)이 특별 초청되어 두루미와 물소 형상의 종이 가면 만들기, 티베트 두루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 미국 두루미의 이동과 관련하여 자연과 인간이 교감을 나누고 습지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순천시와 협력하여 순천만 습지 생태와 두루미를 주제로 한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전영국 과학영재교육원장(컴퓨터교육과 교수, 한국직적탐구학회 회장)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이번 캠프 참여로 순천만 생태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창의적인 과학영재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하계방학 기간 동안 순천만을 주제로 한 IT 기반 주제융합형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두루미의 생태예술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국제두루미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하여 두루미를 주제로 한 과학예술 융합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전영국 원장은 국내외에서 두루미 보전을 위해 힘쓰는 활동가들도 알려져 있으며, 2015년 12월에는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라는 책을 공저로 발간하여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대, 하계방학 '토익 맛보기 특강'



재학생 영어캠프도 40명 참여 성료 영어실력 향상·취업준비 위해 신실

순천대학교는 올해 하계방학 중 실시한 '토익 맛보기 특강'과 '재학생 영어캠프'를 참여 학생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를 내며 지난 4일 마쳤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20시간) 진행한 '저학년(2학년 이하)을 위한 토익 맛보기 특강'은 23명의 재학생이 참여했고, 토익 및 토익 스피킹을 주 내용으로 한 '재학생 영어캠프'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120시간) 40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 실력 향상 및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은 재학생을 위해 열

해 처음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재학생 영어캠프'에 참여한 고분 자공학과 한 학생은 "수강료 부담도 적었고,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원어민 영어회화와 토익강좌를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다"며 "꾸준히 어학원 강좌를 수강하여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나갈 것"은 포부를 밝혔다.

참여 학생들이 보인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힘입은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은 2학기에는 2주 코스(20시간)의 토익 문제풀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은 이번 하계방학을 이용해 순천 지역민을 위한 초·중·등 영어캠프를 3주간 개최하여 8월 18일 종료했다.

폴리텍 순천캠퍼스 벤처창업경진대회 은상

'어스' IoT 시대 위한 가정용 ESS' 신재생 에너지 필요 시간대 사용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학장 김홍제)는 8월 16일 개최된 제1회 4차 산업혁명 대비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기술력에 장의를 입혀 주고, 기업을 정신을 심어 실제 창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학장 김홍제)는 8월 16일 개최된 제1회 4차 산업혁명 대비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권역별 예선을 통해 총 212명으로 이뤄진 40개 팀 중 22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소속팀 "어스"는 치열한 예선경쟁을 뚫고 본선에 참가할 기회를 잡았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13인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8월 16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의대 유치 활동에 나서기 위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

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우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8만 순천시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국가기관, 관련 단체 및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특별위원회는 이우기 위원장, 장숙희 간사를 포함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달 8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총장과 면담을 통해 순천대학교는 전남동부권의 거점대학으로서 대학발전이 지역발전의 견인하고 있기에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제작하여 선보였다. ESS란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한 후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전영선 자동화시스템과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제작한 ESS는 실제 사업화 가능성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얻었으며, 그 결과 은상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제 학장은 "한 학기 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아이템을 개발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며,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는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업을 넘어, 창업의 길도 열어줄 수 있는 전문기술 교육메카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 동부권 취업 명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는 올해 10월부터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며, 중앙정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을 나설 것을 협의했다. 끝으로 임종기 의장은 "전라남도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이자, 동부권은 산업단지가 밀집돼 산업 재해 증가로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동료의원들과 순천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의대유치, 더 나아가 우리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순천대 '진입로 구조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9월22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주변 보행환경·조경디자인 개선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는 '순천대학교 진입로 구조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순천대학교의 역사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안내 구조물을 제작, 진입로 주변의 보행환경과 조경디자인을 개선하여 대학 인지도 제고 및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응모자격은 디자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디자인 방향은 순천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 특성 등이 함축된 것으로, 주변 환경과 부



동)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5층 미래전략단)으로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디자인 아이디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 및 작품 규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대학교 홈페이지(www.scnu.ac.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대학교 미래전략단(☎061-750-3151-2, oupr@scn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